



사진1 = 참나무와 너도밤나무 노령목과 참나무 천연치수

“새로운 숲을 만나다” 시리즈

튀니지 코르크 참나무 숲

글·사진_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원장 배상원

튀니지는 아프리카 대륙 북단 지중해 연안에 있고 서쪽으로는 알제리와 남동쪽으로는 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면적은 16.3만 km²로 우리나라보다 1.5배 넓다. 하지만 인구는 1,170만명이며, 국가 수도는 튀니스(Tunis)로 튀니지 북부의 지중해 연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해안지대는 비옥한 토지로 고대에서부터 중요한 역할을 하여 페니키아인들이 설립한 카르타고가 있다. 튀니지 산림면적은 약 114만ha로 국토면적의 7.1%이지만 무릅목지 등이 많아 이중 숲으로 이루어진 면적은 67만 ha다. 침엽수림 면적은 43만ha로 알레포 소나무(*Pinus halepensis*)가 80% 이상을 차지하며, 활엽수림은 17만ha로 코르크참나무(*Quercus suber*)가 40%로 7만 ha를 차지하고 있다. 코르크 참나무는 튀니지에서 수피는 병 마개, 실내의 벽판재, 목재는 건축재, 가구재, 목공예 등으로 이용하는 중요한 경제수종이다.

코르크참나무는 튀니지에서 숲이 많은 알제리 국경 쪽 튀니지 북서부의 크루미리에(Kroumirie) 산악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두바(Jendouba)주 아인드라함(Ain Draham) 지역의 주요 산지다. 이 지역에는 상록활엽수인 코르크참나무와 낙엽활엽수인 포르투갈 참나무(*Quercus faginea*) 천연림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코르크참나무 천연림은 순림 형태로 분포하는데 해발 400~800m 지대는 온난하고 서늘하여 코르크참나무가 우점하고 있다. 코르크참나무의 수피(樹皮)에서 채취된 코르크는 병 마개나 실내의 벽판재 등, 목재는 건축재, 가구재, 목공예, 땀감 등으로 이용된다.



사진2 = 건조 산악지 코르크 참나무 숲
사진3 = 수피가 채취되는 코르크참나무 경영림
사진4 = 코르크가 채취된 코르크 참나무 줄기





사진6 = 200년된 코르크 참나무 숲

코르크참나무는 기후가 건조한 남서부 유럽(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및 북서 아프리카 국가들(튀니지, 알제리, 모로코)에 분포하며, 수고 10~20m, 흉고직경 50~90cm까지 자란다. 코르크참나무의 코르크 채취는 흉고직경 20~30cm가 되었을 때 시작하고 수피 채취 주기는 새로운 코르크층의 두께가 3~4cm가 되는 8~12년으로 수령이 100년이 넘을 때까지 채취할 수 있다. 크루미리에 산맥에 있는 아인드라함(Ain Draham)은 코르크참나무의 주요 분포지로 튀니스에서 차량으로 서쪽으로 3시간 정도 거리에 있으며, 가는 중간에는 농경지, 초지 그리고 올리브 농장이 많다.

해발이 높은 산악지역으로 들어서 산 아래쪽으로 들어서면 구불구불한 참나무들이 등성등성 자라고 있는 숲이 나타난다. 이 숲이 코르크참나무숲으로 흉고 직경이 30~40cm 정도로 한 아름이 넘을 정도로 굵지만 나무 높이가 5~6m정도로 낮아서 이 지역이 척박한 곳임을 알 수 있다. 코르크참나무 줄기를 자세히 보면 2m 정도 높이까지 수피를 채취하여 수피가 밋밋하고 위쪽은 수피가 그대로 있어 코르크층이 두껍고 굴곡이 심한 코르크참나무 수피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

아인드라함 외곽의 평지에 있는 코르크참나무 인공림은 굵기가 20~30cm 정도이다. 수고가 10~15m로 그리 크지는 않으며, 비교적 골고루 자라고 있지만 이곳 역시 코르크 채취가 실시되고 있어 2m 높이까지는 짙은 색의 수피가 자라고 있고 줄기도 구불구불하다. 코르크를 채취한 한쪽에는 코르크참나무를 벌채하여 쌓아놓은 것들도 보이는데 벌채한 나무의 목질부가 검은색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산위로 들어가면 해발이 높아서인지 포르투갈 참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데 나무들이 뻗뻗하게 서 있지는 않지만 굵기는 한 아름이 넘고 수고 15m정도로 자라고 있다.

지중해 해안 방향 타바르카(Tabarka)쪽으로 가다 보면 코르크참나무 수피를 채취하여 야적한 것들이 길가에 있어 이 지역에서 코르크참나무가 중요한 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길가에 있는 100년이 된 커다란 코르크참나무에서 코르크를 얼마 전에 채취를 하였는지 수피가 주황색으로 보이는 것이 인상적이다. 타바르카 해안가에는 수령이 200년이나 되는 코르크참나무 노령림이 있는데 해안 사구지역에서 자라서인지 나무 높이는 10m도 되지 않고 굵기도 한 아름이 되지 않는다.

또 수피를 채취한 흔적이 남아 있으며, 나무들이 등성등성 서 있거나 3~4그루가 모여서 자라고 있는 것이 많이 보인다. 이런 노령림을 지나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평평한 지역으로 가다 보면 수령 100년의 코르크참나무 숲이 나타난다. 이 숲 역시 크게 자라지를 못하지만 나무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 수관이 울폐된 곳도 많은데 수령이 100년인데도 최근에 코르크 채취 작업을 해서 인지 줄기에 코르충이 제거되어 줄기가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다. 줄기가 2~3개 같이 자란 맹아목은 비교적 수령인 낮고 굵기도 가는 것을 보면 코르크참나무의 유지를 위해 맹아갱신을 한 나무로 보인다.

해안 평지에서 주기적으로 코르크를 채취한 임령 100년의 코르크참나무 숲 노령림으로 수고가 10m 정도이며, 굵기는 한 아름이 채 안 되는 숲으로 최근 코르크를 채취한 나무에는 줄기가 자홍색으로 물들어 있다. 줄기가 2~3개 같이 자란 맹아목은 비교적 수령인 낮고 굵기도 가는 것을 보면 코르크참나무의 유지를 위해 맹아갱신을 한 나무로 보인다. 수령 100년, 굵기 30~40cm의 코르크참나무에서 코르크를 채취한 줄기에는 수피를 다시 생성하기 위해 주황빛 있는 수피층이 생성되고 남은 코르크 두께가 2cm 정도가 되는데 코르크참나무는 목재 생산보다는 코르크 생산을 목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사진7 = 타바르카 해안 풍경

튀니지의 코르크참나무 숲은 경제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숲이지만 노령화, 벌채, 방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성장을 못하고 일부는 훼손이 되어 그 면적이 줄어들고 있어 산림복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코르크참나무는 코르크, 딸감, 목재 외에도 건조한 지역에 수자원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